

4/12/20

설교 제목: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11 장 17-44 절

- (요 11:17)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흘이라
- (요 11: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 (요 11:19)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 (요 11:20)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 (요 11: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 (요 11: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 (요 11: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절관주** 요 11:25
- (요 11:24)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절관주** 단 12:2, 행 24:15
- (요 11: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 (요 11: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 (요 11:27)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 (요 11:28)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 (요 11:29)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 (요 11:30)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 (요 11: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 (요 11:32)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 (요 11:33)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 (요 11:34)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 (요 11: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 (요 11:36)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 (요 11:37)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절관주** 요 9:7
- (요 11: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절관주** 마 27:60, 눅 24:2
- (요 11: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 (요 11: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 (요 11: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 (요 11: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절관주** 요 12:30
- (요 11: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 (요 11: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부활절입니다.

세상은 사탄이 뿌려놓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코 앞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없이 쓰러져 죽습니다.

그것을 보는 모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붙잡힐까봐 꼼짝달싹 못하고 집 안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한 순간에 온 세상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비지니스가 문을 닫았으며 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얼싸안고 부활의 기쁨을 나눌 성도들은 보이지 않고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들만 들려올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슴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환희에 차 있습니다.

사망 권세는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절대적으로 군림합니다.

사망 권세 앞에서는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부자도,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박사도, 힘 센 장수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사망 권세가 덮치는 순간 돈 권력 지식 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단백질 결정체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그것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한지 삼일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그분이 경이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당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요 11: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계속 엉뚱한 짓들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해결책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탄 마귀의 미혹에 빠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들 중 가장 크고 놀라운 이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시며 우리는 어떤 부활 믿음을 가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남동생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려 왔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형제를 무척 사랑하셨고 이들도 예수님께 극진했습니다.

그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생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당장 달려와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갈을 받고도 바로 달려오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 더 머무시다가 출발하신 것입니다.

(요 11:6)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요 11:7)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올바른 부활 믿음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긴 했는데 그것은 죽은 다음 부활할 것을 믿는 전통적인 유대 부활 신앙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한지 나흘이나 되어서야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요 11:17)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왔습니다.

(요 11: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요 11:19)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나가 맞이했으나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럴 마리아가 아닌데 예수님께 무척 섭섭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안계셔서 나사로가 집안에 가장 역할을 해왔으며 그랬기에 남동생 나사로가 죽으면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살 길이 막막해지는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바로 달려와 고쳐주시지 않고 지체하시다가 죽어 무덤에 장사한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나타나셨으니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요 11:20)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도 예수님께 섭섭한 심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요 11: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 11: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렇지라도 마르다는 한가닥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런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십니다.

(요 11: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이 뻔한 말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원한 것은 오라비 나사로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요 11:24)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아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여 이렇게 투명스럽게 쓰아 붙인 것입니다.

사두개인을 제외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 곧 세상 끝날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외로운 지나 불의한 자나 다 부활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었습니다.

마르다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곧 세상 끝날 부활하여 심판대에 설 것을 믿는 유대 전통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 11: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부활 안에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이미 부활과 생명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유대로 향하면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나사로가 자고 있다고 그러니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 11:11)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 11:12)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요 11:13)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요 11:14)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피조물로 부활하여 새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 법정에서 칭의를 입은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다시 물으시자 마리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요 11:27)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긴 했지만 이어서 한 말로 보아 아직 마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 11: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요 11: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요 11: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마르다가 아직도 당신의 말을 믿지 못하고 생똥맞은 소리를 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장사를 지낸지 나흘이나 지나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불러내십니다.

(요 11: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요 11: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나사로는 죽지 않고 부활과 생명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고 진정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자고 있던 나사로를 깨운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당신이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이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온전히 믿게 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후 마르다와 마리아는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시간 죽음의 사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것과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현재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